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2期(2026.05.29) WWW.MINGHUI.ORG

한글판 1056호 minghui.or.kr



▲ 5월 17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체코, 세르비아, 스위스 등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은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날을 축하했다.

주요 내용

- 【중 국】 두부 가게의 이른 아침: ‘세계대전’이 웃음 속에 사라지다
- 【중 국】 옛날엔 6척 골목, 지금은 1미터 담
- 【수 련】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은 교훈
- 【수 련】 관념을 바꾸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수련하다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두부 가게의 이른 아침: ‘세계대전’이 웃음 속에 사라지다 12

옛날엔 6척 골목, 지금은 1미터 담 16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28

■ 수련교류

감시카메라 문제에 관한 교류 30

‘샤오편홍’에서 굳건한 대법제자로 37

‘정(情)’에 대한 얕은 인식 43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은 교훈 45

뺏속까지 파고든 집착을 제거하다 51

관념을 바꾸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수련하다 59

스쿠터에 깔린 이후의 반성 6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미국 뉴욕주 각급 정부, 국회의원, 주 상·하원 의원, 뉴욕시 의원 및 여러 카운티, 시, 타운의 40여 명 정계인사가 축하 서한을 보내거나 표창장을 수여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진선인(眞·善·忍)’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시민의 심신 건강과 사회 도덕성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점을 찬양했다. 뉴욕주 상원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국회 하원의원 패트릭 라이언(Patrick K. Ryan)은 제 27회 파룬따파의 날을 표창했다.

뉴욕주 상원 임시 의장 겸 다수당 원내대표이자 제35선거구 상원의원인 안드레아 스투어트-커즌스(Andrea Stewart-Cousins)는 5월 13일 ‘파룬따파 표창’ 공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본 입법 기관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회 내에서 건강, 바른 생각, 자비, 화목을 주창하는 데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파룬따파 수련자들을 이에 표창합니다.” 뉴욕주 상원 소수당 원내총무이자 제60선거구 주 상원의원 패트릭 갤리번(Patrick Gallivan)은 파룬따파의 날을 표창하는 표창장에 서명해 발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진선인’ 원칙을 따르며 도덕적 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 뚜렷한 건강상의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파룬따파 수련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추구를 넘어 지혜를 열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룬따파는 마음이 순수하고 생각이 균형을 이루며 몸에 에너지가 충만할 때 건강과 행복이 수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

이 중독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며, 커뮤니티는 미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게 됩니다.”

뉴욕주 하원 다수당 대표이자 제141선거구 주 하원의원 크리스탈 피플스-스토크스(Crystal D. Peoples-Stokes)는 자신의 선거구(버펄로)에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뉴욕주 및 버펄로 시민들과 함께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그녀는 서한에서 말했다. “파룬따파의 가치관은 사회에 탁월한 공헌을 했습니다. 창시자 리홍쯔 대사님의 가르침과 지도는 이미 억만 명의 사람들이 더 평화롭고, 더 자애로우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 사람을 향상시키는 수련은 시종일관 ‘진선인’의 보편적 기준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즈음,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의 굳건한 정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두려움 없이 신앙의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수련자들이 역경 속에서 보여준 용기는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자유를 반드시 수호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뉴욕주 하원 소수당 대표이자 제19선거구 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라(Edward P. Ra)는 ‘연례행사인 세계 파룬따파의 날 축하 행사를 표창하고, 파룬따파의 가치와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공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말했다. “롱아일랜드의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파룬궁 공법교육 제공, 건강 정보 강좌, 문화 TV 프로그램, 예술 전시 및 야외 연공장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진선인’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며, 강력한 단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뉴욕주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서퍽 카운티의 카운티장은 공고문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헌신하는 모든 파룬궁수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주민이 이 수련법이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기를 권장한다”라고 특별히 밝혔다.

오렌지 카운티의 카운티장 스티븐 뉴하우스(Steven M. Neuhaus)는 2026년 5월 13일을 오렌지 카운티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하며 “전체 주민이 함께 축하하고 ‘진선인’ 가치를 체득하며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안녕에 대한 파룬따파 수련자들의 기여에 감사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밝혔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 카운티장 브루스 블레이크먼(Bruce A. Blakeman)은 표창장을 수여해 파룬따파를 표창하고 5월 13일을 해당 카운티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했다. 이리 카운티 카운티장 마크 폴론카즈(Mark C. Poloncarz)는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폴론카즈는 이에 따라 2026년 5월 13일을 이리 카운티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결의하고 선포하며 전체 주민이 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에 대한 파룬따파의 기여를 찬상할 것을 권장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하원은 뉴잉글랜드 파룬따파 학회에 표창장을 수여하며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 시의원, 포트벤드 카운티 카운티장 및 미주리시 시장이 미국 남부 파룬따파 불학회에 잇따라 축하 서한과 표창을 보내 파룬따파가 커뮤니티에 평화와 이해를 가져다주고 전 세계 인류에게 혜택을 준 것을 표창했다.

버지니아주 제51구 주의원 에릭 제어(Eric Zehr)도 표창장을 발표해 파룬궁 창시자와 버지니아주 파룬궁수련자들이 30년간 우

리 주 커뮤니티에 한 공헌을 표창했다. 표창장에서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공 악당의) 탄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며 폭정과 천부 인권 사이의 보편적인 투쟁을 세상에 일깨워주었고 그들의 평화롭고 이성적인 끈기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수호하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찬사를 보냈으며 “모든 시민이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소중히 여기는 ‘진선인’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것을 장려한다”라고 밝혔다.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렌지빌, 배리, 케임브리지, 브라이튼 4개 도시는 각각 시청 앞에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는 깃발을 잇따라 게양했다. 이는 올해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에 있는 애머스트버그부터 밴쿠버의 나나이모까지 캐나다 총 7개 도시에서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라는 신성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국기 게양식을 거행한 데이온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시장이 직접 국기 게양식을 주재했으며 파룬따파가 ‘진선인’ 이념을 현지에 가져온 것에 찬사를 보내고 파룬따파가 사회 자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 바를 표창했다.

5월 11일, 온타리오주 브라이튼은 국기 게양식을 거행해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으며, 시장 브라이언 오스트랜더와 국회의원 필립 로런스가 국기 게양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원 필립 로런스 “저는 이곳에 와서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게 돼 영광이며, 모든 수련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파룬따파는 자유, 민주, 인권, 평화 등 중요한 이념을 옹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치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필립은 또 자신이 국기 게양식에 참석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말했다. “ ‘진선인’은 매우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갈수록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자는 항상 이 중요한 가치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계속 지지하겠습니다.”

온타리오주 법무부 장관이자 주의원인 더그 다우니는 축하 서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주의원으로서 영광스럽게 ‘파룬따파의 날’을 선포하고 이 의미 깊은 34주년을 기념합니다. 이 축하 행사는 정신 수련, 내면의 평화, 개인적 성장을 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성찰과 개인 수련을 통해 이러한(‘진선인’) 미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모습은 존경스럽고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수련 방식이 가져온 긍정적인 기여는 우리 커뮤니티의 건강, 바른 생각, 화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에너지 심장부인 앨버타주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주의원, 제1의 도시 캘거리 시장 및 시의원, 주변 도시의 시장 및 타운장들이 파룬따파학회에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자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안부와 가장 아름다운 축원을 전하며, ‘진선인’ 가치관이 무수한 시민의 삶에 영감을 준 것에 찬사를 보냈다. 또한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강력하고 조화로운 국가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캐나다의 자랑이라고 표창했다. 그들은 또 수련자들이 중공의 박해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신앙을 실천하는 인내에 감동했다며 “수십 년간의 박해와 베이징 정권의 초국가적인 탄압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진선인’의 보편적 원칙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라고 전했다.

앨버타주 주지사 대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는 “앨버타주 정부를 대표해 캘거리 파룬따파학회에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하며

2026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여러분이 함께 축하하는 이 시간, 저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체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여러분이 걸어온 역사를 잊지 않기를,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인 ‘진선인’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라며 축복을 보냈다.

캘거리 셰퍼드(Shepard)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연방 예비 내각 장관인 톰 크미에크(Tom Kmiec)는 캐나다 국회를 대표해 파룬따파학회에 가장 진심 어린 안부를 전했다. “이날은 파룬따파 정신의 전승을 축하하는 동시에, 중국 파룬공수련자들이 지속해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1992년 이후, 파룬따파는 수백만 명에게 자아 성찰, 내면의 평화, 도덕적 각성으로 가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파룬공수련자들은 ‘진선인’의 원칙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과 여전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중공의 박해에 직면해 비범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중공의 끊임 없는 초국가적 간섭과 조직적인 침묵 강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는 그 정권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그리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생명과 자유를 희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합니다.”

캘거리 로키리지(Rocky Ridge)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연방 예비 내각 부장관인 팻 켈리(Pat Kelly)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여러분이 중공의 끊임없는 박해에 직면했을 때 확고한 비폭력 방식으로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굽힘 없이 수호하는 그 백절불굴의 정신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새해에는 파룬따파 수련자들과 중공의 박해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희망했다.

5월 16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유럽 최대 항구 도시 로테르담에서 집회와 퍼레이드를 열고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며,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감사를 표했다. 국제 인권 단체인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 국경없는인권, 글로벌 인권수호 및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 차별반대센터에서도 각각 축하 서한을 보냈다.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는 축하 서한에서 전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상, 신앙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자의적인 박해를 중단하고, 신앙과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국경없는인권의 한스 누트 소장은 축하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파룬궁수련자들을 굳건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5월 17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체코, 세르비아, 스위스 등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은 16일 로테르담 축하 행사에 이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암스테르담 주요 거리를 따라 퍼레이드를 하며 세계 파룬따파의 날과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사부님의 탄신일을 축하했다. 해리 판보멀 네덜란드 전 하원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축하했다. 그는 장기간 파룬궁의 박해 반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 왔다. 그는 발언에서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장기간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정부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촉구하며 네덜란드 파룬궁 단체가 하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5월 13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독일 북부 도시 함부르크의 엘프필하모니 앞(Elbphilharmonie)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수련자들은 오가는 시민들에게 공법을 시연하고 파룬궁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공유했다. 파룬궁수련자 실비아는 말했다. “파룬따파는 제게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제 수련의 길을 인도해 주었고 제 삶의 많은 의문에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련 후 실비아는 자신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다. “저는 불안하고 지치고 불안정하던 것에서 더욱 용감해지고 강해졌으며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모두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보았고 때로는 매우 놀라기도 합니다. 제 가정 생활은 더욱 화목해졌고 많은 일도 더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5월 9일 헝가리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부다페스트 영웅 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며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사부님께서 이 수련 공법을 세상에 널리 전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렸다. 수련자들은 7명의 헝가리 부족장 청동 조각상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광장에서 단체 연공을 하며 시민들에게 파룬따파 수련의 훌륭함과 심신에 얻은 이로움을 소개했다.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중공이 지속적으로 파룬따파를 박해하는 진상을 알렸다.

5월 16일,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도바(Padova)에서 대법을 널리 알리고 진상을 알리는 행사를 열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며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함과 아울러 사람들에게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받는 진상을 알렸다.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아레초(Arezzo)현 부치네(Bucine)시에서 ‘진선인 국제미술전’(The Art of Zhen-Shan-Ren)이 개최됐다. 부치네시 시장 난니니(Nannini)와 문화업무위원 무냐이(Mugnai) 그리고 미술전 주최 측인 이탈리아 파룬따파 학회장

카테리나(Katerina)가 함께 미술전 개막식 테이프를 끊었다. 이번 행사는 부치네시 정부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발담브라 지역 축제’(Valdambra Festival delle Regioni)의 일환이다.

5월 9일, 크로아티아 파룬공수련자들은 해안 도시 리예카 중심에 있는 보행자 거리 코르조 대도를 찾아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일부 수련자들은 현장에서 공법을 시연했고, 다른 수련자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며 관심을 보이는 행인들에게 파룬따파 진상 정보를 소개했다. 많은 행인이 수련자들과 대화하며 파룬공 수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명하며 파룬공수련자의 박해 반대를 성원했다.

5월 16일, 프랑스 서부 지역의 일부 파룬공수련자들은 브르타뉴의 주도 렌 중심가 레퓌블리크 광장에 모여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념했다. 그들은 오가는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중공의 파룬공 박해 진상을 폭로했으며 동시에 중공의 파룬공 박해를 반대하는 서명을 받았다.

5월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행사는 우크라이나 수도의 가장 주요한 거리로 항상 인파로 붐비는 흐레샤티크 거리에서 열렸다. 수련자들은 파룬따파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했다. 연공 장면을 더욱 경사스럽게 하려고 한 젊은 여성 수련자가 선녀복을 입고 커다란 연꽃 속에서 연공했다. 수련자들은 또 행인들에게 파룬따파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나탈리아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약 1년이 됐다. 나탈리아는 예전에 심각한 연골 질환으로 혼자 옷을 입을 수 없어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2007년부터 나탈리아를 괴롭혔던 연골 질환이 뜻밖에도 다 나왔다.

두부 가게의 이른 아침: '세계대전'이 웃음 속에 사라지다

글/ 구이화(桂華, 중국)

[명혜망] 북방 농촌의 두부 가게는 원래 아침에 가장 활기차고 입맛이 당기는 곳이다. 그런데 그날은 하마터면 '패싸움'이 벌어질 뻔했다.

2009년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내 남편 왕젠(王建, 가명)이 마을 두부 가게에 콩비지찌개를 먹으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두부 가게 후(胡) 사장에게 맞았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다. 남편이 아침에 두부 가게에 갔을 때 마을 이장의 아내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형부, 형부가 사장 아주머니한테 제가 어제 밥 먹고 돈을 안 냈다고 증언해 주셨다면서요. 형부는 마을에서 덕망 있는 분인데, 평소에 저도 많이 존경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어제 당신이 밥 먹으러 오는 걸 아예 못 봤는데, 무슨 증언을 한단 말인가요?”라고 답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돌이서 함께 사장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남편이 사장 아주머니에게 따졌다. “제가 언제 저분이 어제 밥 먹고 돈을 안 냈다고 했어요? 어제 나는 저분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장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고, 곁에 있던 남편

후 사장이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만해, 입 다물어!”

남편이 “거짓말을 했으면서 말도 못 하게 해요?”라고 하자, 후 사장이 키질 채를 집어 들어 남편을 세계 후려쳤다.

사장 아주머니는 우리 남편이 4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아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얼른 나서서 자기 남편을 말렸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마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한 번도 남과 시비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 남편은 맞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집에 돌아와 곧바로 나에게 이 일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얘기를 들은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너무하는군요!”라고 맞장구를 쳤고,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다.

남편이 내게 말했다. “당신이 가서 따지지 않으면 이 억울한 감정을 삭일 수 없어.”

나는 올해 76세로, 원래 마을에서 ‘기센 사람’으로 통했다. 쟁투심이 매우 강하고 직설적인 데다, 성격이 불같아서 조금도 억울한 일을 참지 못했다. 1996년에 법공부와 연공을 시작하면서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살다 보니 그제야 천천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맞아도 반격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맞받아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다. 그래서 남편이 ‘억울함을 삭일 수 없다’는 말을 하자, 오히려 나는 순간 냉정해졌다. ‘아, 나는 또 눈앞의 일에만 매몰됐구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는 것도 다 인과관계가 있는 법이 아닌가? 원한은 맺지 않고 풀어야 하거늘, 어찌 원수를 원수로 갚는단 말인가?’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따지러 갈 수는 없어요. 나는 대법을 따르고 사부님 말씀을 따라야 해요. 내가 가서 싸움을 벌이면 내가 아직도 대법제자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대법에 먹칠하는 일이잖아요.”

남편은 이 말을 듣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내 죽고 사는 건 모른 채할 거야? 내가 화병으로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남편을 화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두부 가게에 한번 가 보기로 했다. 걸어가는 내내 어떻게 이 일을 잘 수습할까 생각했다.

몇 분 만에 두부 가게에 도착했다. 가게 앞에는 유타오(油條, 중국식 파배기)를 튀기는 사람, 밥을 먹는 사람, 구경꾼들이 모여 방금 전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내가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해 준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오는 걸 보고 싸우러 오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가게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유타오를 튀기던 사람도 장사를 내팽개치고 따라 들어왔다. 모두들 이제야말로 볼거리가 생겼다 싶었던 것이다!

나는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사장 아주머니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그녀가 대답하며 두부 국자를 든 채 나왔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 “내 남편이랑 후 사장이 세계대전을 벌였다던데? 하하하하!”

내가 이렇게 웃으니, 구경꾼들도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사장 아주머니가 얼른 말했다. “오늘 일은 형부도, 내 남편도 잘못이 없어요. 다 내가 거짓말을 한 탓이에요. 형부가 매일 아침 와서 드

시고 하는 말은 다들 믿으니까 그 이름을 끌어다 썼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사실 이장 덕 아주머니는 어제 밥 먹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 기억한 거예요.”

사장 아주머니는 자기 잘못이라고 계속 이야기했고, 나는 한마디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장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다. “집에 가서 형부한테 제가 사과드린다고 전해 주세요. 제발 화내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도 꼭 오셔서 드시라고 하세요.”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 옥수수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찰빵 몇 개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형부가 이 찰빵을 좋아하시잖아요. 가져가서 드세요.”

나는 평소에 남의 것을 쉽게 받지 않는데, 그날은 화가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 받아 들었다. 기분 좋게 찰빵을 들고나오니, 사장 부부와 구경꾼들이 함께 나를 배웅해 줬다.

며칠 후 두부 가게 앞을 다시 지나가는데, 후 사장이 얼른 안에서 의자를 가져나와 앉았다 가라고 권했다. 나는 웃으며 앉아서 그 집 가족 모두에게 삼퇴를 해줬다.

이 일이 있던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 이걸 드러내는 게 과시심은 아닐까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몇 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화려한 글을 쓸 줄도 모른다. 그저 사부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사부님께서 나처럼 ‘기센 사람’을 온화하게 변화시켜 주셨다.

(명혜망 2026년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응모작)

옛날엔 6척 골목, 지금은 1미터 담

글/ 장롄(張蓮) 구술, 리화(李華) 정리 (중국 랴오닝성)

[명혜망] 청나라 강희제 때 대학사 장잉(張英)의 가족이 안후이 퉁청(桐城)에 살고 있었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이웃 우(吳) 씨 집과 담장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당시 베이징에서 관직에 있던 장잉에게 편지를 보내 힘을 써달라고 했다. 장잉은 편지를 받고 즉시 시 한 수를 답장으로 보냈다. “천 리 밖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오로지 담장 하나 때문이니, 그 집에 세 척을 양보한들 무슨 상관이리오. 만리장성은 지금도 그대로 있건만, 그것을 쌓은 진시황은 보이지 않는구나.”

장잉의 가족은 답장을 받자마자 자기 집 담장을 세 척 뒤로 물리기로 했다. 이웃도 그 소식을 듣고 역시 세 척을 물렸다. 그렇게 두 집 사이에 여섯 척의 공간이 생겼고, ‘육척 골목(六尺巷)’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강희제는 겸양의 덕을 기리기 위해 패방을 세우도록 명했다.

나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기와집 세 칸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집을 지어주시지 않았다. 마음이 너그러운 나는 그냥 넘어갔다. 훗날 내가 스스로 방 한 칸을 짓겠다고 자재를 다 준비해놨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시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막으셨고, 되레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돈을 버셨다. 이번에는 나도 화가 났고, 그 화에 위장병이 생겨 온몸이 불편해졌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도 낫지 않아 여기저기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병은 낫지도 않고 하마터면 빙의까지 부를 뻔했다.

그 후 수련을 시작한 뒤로는 이치도 더 잘 알게 됐고 몸도 좋아졌다. 다만 생활 속의 번거로운 일들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집에 세 칸 방이 생기다

마을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양도하려고 내놓았다. 시부모님이 집을 짓지 않아 우리가 살 곳이 없던 터라, 나는 그 가게를 인수해 장사도 하고 거기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형부가 반대했다. 당시 농촌에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없었기에, 나는 형부에게 말했다. “그릇 50세트와 냉장고를 사서, 혼례용 그릇을 대여하고 아이스크림도 팔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어요.”

결국 나는 그 가게를 인수했다. 가게에는 방이 나란히 두 칸 있었는데, 한 칸은 살림 공간으로, 다른 한 칸은 판매 공간으로 썼다. 이후 형부가 사람을 불러 옆에 방 한 칸을 더 지어주었다. 나중에 지은 이 방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방 안 가득 들어왔다.

나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장사가 안 된다던 작은 가게도 내 손에 들어오자 제법 짭짤한 수익을 냈다.

이웃이 1미터 담을 쌓다

어느 해, 이웃 리(李) 씨가 집을 짓겠다고 우리집에서 딱 1미터 떨어진 곳에 기초를 놓았다. 그 집이 올라서면 우리집 세 칸의 창문이 리 씨네 산담(山牆, 지붕 끝을 받치는 측면 벽)에 완전히 가려져 1년 내내 햇빛 한 줄기 들지 않게 된다. 농촌에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시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단단히 화가 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빛도 막히는데 풍수까지 해친다고요,

재운을 막는 것 아닙니까?”

시동생은 뒤편 리 씨네를 찾아가 절대 안 된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향 공사로 달려가 신고까지 했다. 공사 측에서 나와 리 씨네에 “짓지 마시오”라고 했지만, 리 씨네 딸과 사위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둘째 형수님, 그냥 짓게 해주세요. 설계도 다 나와 있어요.”

농촌 사람들은 풍수를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데, 리 씨네는 산담이 우리집 창문을 완전히 가린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들 ‘원한은 맺지 말고 풀어야 한다’고 한다.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이인데, 이런 것에 연연할 수 없다. 내가 리 씨네를 못 짓게 하면, 그 집 식구들과 동네 친척들을 합치면 큰 집안인데.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선량하고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집이 우리집을 배려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집을 배려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시동생에게 말했다. “저는 그 집이 못 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대법을 배운 게 헛것이 되잖아요.” 시동생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가버렸다.

리 씨네는 결국 집을 다 지었고, 우리집 세 칸의 창문을 몽땅 가려버렸다. 특히 바닥까지 내려오던 큰 창문도 햇빛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큰 창문을 작은 창문으로 바꿔 환기용으로만 쓰기로 했다.

우물물 분쟁

설상가상으로 리 씨네는 시동생이 마을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을 지으면서 우리집 식수용 우물을 막아버렸다.

물 없이 어떻게 살겠는가. 나는 사람을 불러 원래 우물 옆에 새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물을 파다 보니 리 씨네가 도로 담당 직원을 데려와 우물 파는 것을 막았다.

이 일을 알게 된 마을 서기가 나서서 말했다. “사람이 살도록은 해줘야 하지 않소? 우물도 없으면 뭘 먹으란 말이오?”

그때 우물을 25m까지밖에 파지 못한 상태였다. 리 씨네가 막으니 나는 더 파지 않았다. 가족들은 몹시 속을 끓였다.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 물이 나오려면 최소 40m 이상은 파야 하는데, 25m로 어떻게 물이 나오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 나온 것이다. 그것도 ‘칼칼’ 소리를 내며 풍성하게 솟아올랐다. 이후 리 씨네 우물에는 물이 마르고, 물을 길으러 멀리 나가야 했다. 나는 먼저 나서서 우리집에 와서 물을 길어가라고 했지만 리 씨네는 면목이 없어 오지 못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우리가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을 본 리 씨네도 마침내 새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게 됐다.

리 씨네 아주머니가 다리를 다치다

어느 날 리 씨네 아주머니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딸과 사위는 멀리 살아 돌봐줄 수 없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자주 아주머니께 밥을 갖다드렸다. 볶음 요리, 찌빵, 물만두, 찌만두를 만들어 날랐다. 씻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발도 씻겨드렸다.

리 씨네 딸이 감격해 달려와 고맙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제가 대법을 배웠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할 것 없어요. 대법 사부님께 감사하세요! 사부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저는 사부님께 감사드려요! 언니께도 감사해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 말했다. 리 씨네 아주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다. “장련은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 리 씨네 딸, 사위, 사돈 등 집안의 많은 사람이 이 일을 계기로 진상을 알게 됐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대법제자의 인품을 칭찬해 마지않으며, 모두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좋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말했다. “옛날엔 육척 골목이 있었고, 지금은 1미터 담이 있구만. 파룬궁 수련하는 분들만이 이런 경지를 가질 수 있어. 파룬따파만이 이런 좋은 사람을 길러낼 수 있어!”

남편의 내연녀를 선하게 대하다

나는 ‘진선인(眞·善·忍)’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았다. 내가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남편은 외도를 했다. 나는 돌아온 후 많은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순간 마음이 몹시 아팠다. 하지만 이 일을 따지고 들면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나는 대법이 만든 생명이고, 사부님의 정법을 돕고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인데 작은 일에 원망을 품으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나는 끊임없이 질투심과 원망심을 없애고, 대법제자의 자비심을 키우려 했다. 남편을 용서하고 그 내연녀도 용서했다. 수련인의 자비로 그들을 감화하고, 앙금 없이 진심으로 그녀를 잘 대하며 악연을 풀어갔다. 그녀 집이 어려운 편이었기에 자주 먹을 것과 쓸 것을 갖다주었다.

내 아들이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넘쳤다. 고객들은 모두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 아들 사람됨을 보고 자주 선물을 보내왔다. 아들이 사다준 과일도 그녀에게 나눠줬고, 아들 고객이 선물한 7~8백 위안짜리 한국 화장품도 그녀에게 건넸다. 또 집에서 넉넉히 만든 음식도 갖다줬더니 그녀가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조금씩 내 선한 마음과 행동이 그녀를 감화했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졌다.

나는 악연을 풀었을 뿐 아니라, 그녀가 대법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게 하고 대법을 위해 공정한 말도 할 수 있게 됐다. 한번은 그녀가 과마를 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파룬궁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진선인’이 사교(邪教)라면, 대체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말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진선인’을 배운다면 탐오 부패가 있겠어요?” 아무도 말을 못 했고, 그중 한 사람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어떤 때는 내가 진상을 이야기할 때 그녀도 함께 돕고, 사람들에게 삼퇴를 권했다. 한번은 그녀가 우리 동네 담당 경찰관에게 말했다. “좀 좋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진선인’이 뭐가 잘못됐어요? 련화(蓮華)는 전에 병이 있었는데, 연공하고 다 나았어요.” 그 경찰관은 대법제자들을 좋게 대했는데,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됐다. 돌아온 뒤에 우리집에 와서 말했다. “그해 제가 이 구역을 담당하지 않던 사이에 당신이 잡혀갔더군요. 제가 말고 있었

다면 잡혀갈 수 있었겠어요?”

남편을 선하게 대하다

중공 악당의 박해 때문에 남편은 몹시 두려워하며 내가 진상을 말하는 것을 자주 막았다. 남편의 몸은 갈수록 나빠져 겨우 60세에 노동 능력을 잃었다. 주사도 맞고 CT도 찍었지만 특별한 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냥 몸이 불편해 하루 종일 방바닥에 누워 병약하게 지냈다. 내 언니가 불교를 믿는데 남편에게 말했다. “내 동생은 사람을 구하러 온 사람이예요. 당신이 그 길을 막으면 당신한테 좋지 않아요.”

내 아들은 파룬따파를 전심으로 인정해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 대법에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미래가 없어요. 대법은 불법(佛法)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람 구하는 일을 반대한다면, 아버지한테는 집을 따로 지어드리고 어머니가 마음껏 수련하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옆방에서 연공하고 있었는데, 집 안의 전등이 갑자기 깜빡깜빡하기 시작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연공을 했다. 그런데 연공 음악이 갑자기 멈춰 침실로 들어가 보니, 남편이 심장이 거의 멈출 것처럼 위급해져서 나를 부를 힘도 없는 상태였다. 남편이 말했다. “어서 구심환(救心丸) 갖다줘.” 나는 말했다. “오늘 낮에 대법에 불리한 말을 했죠? 어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하세요. 저도 같이 할게요.” 남편은 이때 깨달음이 생겼는지 즉시 나와 함께 염하기 시작했다. 20분 후 남편은 좋아졌고 약도 먹지 않았다. 그는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몸소 체험했다.

이후 나는 남편에게 ‘정중 성명’을 써서, 이전에 한 잘못된 일들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권했다. 남편은 다 쓰고 나자 몸이 곧바로 좋아졌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몸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이웃집 80살이 넘는 어르신을 돌보러 다닐 수 있게 됐다.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물었다.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여요? 건강도 그렇게 좋고요?” 남편은 말했다. “집사람이 대법을 수련하는데, 20여 년 동안 약 한 알도 먹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 “부인이 대법 수련하는 걸 반대하세요?” 남편은 말했다. “처음엔 좀 두려웠는데, 이제는 반대하기는커녕 지지해요.” 내가 진상을 이야기할 때 남편도 함께 거들며 사람들에게 삼퇴를 권해 평안을 보존하라고 했다.

어느 날 경찰이 불법 가택수색을 하러 왔는데 마침 내가 집에 없었다. 남편이 경찰에게 말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이것들은 모두 내 것이요, 집사람과는 관계없소. 사람을 잡으려면 나를 잡아가시오.” 경찰은 정말 남편을 잡아 구치소로 보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이상이 있어 링거를 두 병이나 맞추고 나서 풀어주었다.

남편은 처음의 이해 못 함에서 진심으로 파룬따파가 좋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대법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그만큼의 복도 받아 갈수록 젊어졌다. 60세 때는 70대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70세가 됐는데도 60대처럼 보이며, 얼굴이 불그레하고 활력이 넘친다.

아들은 아버지께 지극히 효도해 좋은 것은 다 갖다드리고, 여행도 데려다드리며 즐겁게 해드린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날아갔는데, 땅에 떨어지고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사부님께서 남편을 보호해주셔서 크게 놀랐지만 다치지 않은 것이다.

대법의 가호로 기적이 일어나다

마을 장(張) 씨네 딸은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고, 리 씨네 며느리도 결혼 7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수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나는 자주 그들에게 말했다.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염하면, 대법의 가호로 아이가 생길 거예요.” 두 사람은 모두 믿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정말로 잇따라 임신이 됐고 두 집안 모두 기쁨이 넘쳤다.

장 씨네 딸이 임신 1개월이 됐을 때,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앞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 중환자실(ICU)로 실려 갔다. 딸은 소식을 듣고도 평소 마을에서 목청껏 소리 높여 다니던 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얇은 잠옷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어머니는 가망이 없어요. 뇌간 출혈이라 살릴 수 없어요. 어서 장례를 준비하세요.”

장 씨네 딸은 생각했다.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잘 대해주셨는데, 어머니가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 오직 대법 사부님만이 어머니를 구하실 수 있어.’ 그녀는 즉시 중환자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크고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대법 사부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크고 또렷하게, 몇 번이고 되풀이해 외치며, 몇 번이고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며 절을 했다. 이마에는 동그랗고 커다란 혹이 솟아올랐다. 중환자실 문 앞에 많은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며 모여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의 시선에도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진심을 다해 외치고 절을 거듭했다.

달려온 친척들이 계속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임신 중인 몸이니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한 시간여가 지나자, 딸의 지극한 정성이 닿아 어머니가 대법 사부님의 가호를 받아 기적이 일어났다. 어머니에게 의식이 돌아온 것이다. 딸의 대법과 대법 사부님에 대한 굳은 믿음 속에서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났다. 의사들도 믿기 어렵다며 놀라워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후 회복 기간에 약간 우울해했다. 나는 대법 노래와 대법 진상 자료를 녹음해 들려주고, 여러 진상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그녀는 듣고 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해주는 말이 좋아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지자 몸도 차차 좋아졌다.

불과 3개월여 만에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다시 마을을 활보하며 소리 높여 다닐 수 있게 됐다. 딸도 커다란 사내아이를 낳으니 정말 경사가 겹쳤다! 리 씨 며느리도 귀여운 딸을 낳아 온 가족이 기뻐했다.

가게가 마을의 ‘탈당 센터’가 되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러든 그냥 들르든, 모두 내 가게에 오는 것을 좋아했다. 이 세월 동안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에게 진상을 이야기했고, 모두 삼퇴를 했다.

나는 또 이웃들에게 대법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나눠주었다. 진상을 알고 나면 모두들 기꺼이 받으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와 호신부를 달라고 했다. 그들은 호신부를 몸에 지니고 스쿠터를 타면서도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찼싼런하오’를 조용히 되뇌었다. 내 가게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도 진상을 이야기하며 인연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

마을에 라오텐(老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심장이 좋지 않아 심할 때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아서 곁에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었다. 아내는 대법을 전심으로 믿어서 호신부를 달고 나서 심장병이 기적처럼 나았고, 너무 신기해서 남편 라오텐에게도 달라고 했다. 라오텐은 호신부를 달고 몇 차례 생사의 위험을 넘겼다.

라오텐은 평소에 세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화물을 배달했다. 어느 날 마을 어귀 갈림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충격이 몹시 심했다. 승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운전자와 동승자 5명 모두 부상을 입었다. 마차에 함께 타고 있던 짐꾼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세 마리의 큰 말은 모두 사지를 하늘로 뺐은 채 길가에 쓰러져 죽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차를 몰던 라오텐만은 대법 호신부를 달고 있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라오텐의 딸이 멀리서 말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제 다 끝났구나, 말이 모두 사지를 뺐고 쓰러졌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서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버지의 동창생이 아버지를 안고 울고 있었는데,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아무 이상이 없다니, 정말 천만다행이야!”

사고 후 라오텐이 우리집에 와서 말했다. 경찰들도 “이번 사건은 꽤 큰 사건이에요. 음주운전에 치였으면 죽거나 다쳐야 정상인데, 멀쩡하다니 정말 신이 보호한 거예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라오텐은 대법 호신부를 달고 있어서 대법 사부님의 가호를 받은 것임을 알았다.

또 한번은 라오텐이 마차를 몰고 이웃집 거름을 나르다가 문간을 지날 때 발이 걸려 넘어졌다. 마침 마차 바퀴 옆으로 쓰러졌는데, 말이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면 바퀴가 라오텐의 목을 짓밟을 판이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말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무리 해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웃이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말이 왜 앞으로 안 가지요?” 라오텐은 호신부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호신부를 달고 있거든요! 호신부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이웃은 전에 중공 악당의 거짓 선전을 믿어 대법을 잘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직접 목격하자 파룬따파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됐고, 그녀도 대법 진상 호신부를 달겠다고 했다.

나는 꿈에서 마을에 복사꽃이 만발한 것을 본 적이 있다. 뭉게 뭉게 무더기로 피어, 산꼭대기에서 산기슭까지 온통 꽃으로 뒤덮였다. 나는 그것이 구원받은 중생들의 환한 미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세월 동안 내 가게는 이곳의 ‘탈당 센터’가 됐고, 많은 사람이 대법 진상을 알게 됐으며, 많은 사람이 파룬따파의 가호를 받았다. 대법의 신기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구원받은 중생들은 대법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한없이 감사드린다!

(명혜망 2026년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응모작)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원난성 쿤밍시의 61세 파룬궁수련자 디젠차오(狄建超)는 2025년 7월 15일 밤, 17~18명의 사복한 쿤밍 관두구 국보대대 경찰과 시산구 중자 파출소 경찰들의 가택 침입으로 납치돼 관두구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2026년 4월 30일 쿤밍시 우화구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6000위안을 갈취당했다. 불법 판결에 가담한 인물은 재판장 허윈(何文), 검사 황평원(黃鵬文) 등이다.

장시성 잉탄시 웨후구의 82세 파룬궁수련자 린찬셴(林燦仙)은 2024년 상반기 경찰에 납치됐다. 그녀의 혈압이 계속 너무 높아 구치소가 수감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그녀를 구이시시 검찰원에 모함했다. 2026년 4월, 구이시시 법원은 린찬셴에게 1년형, 집행유예 2년, 외부 집행을 부당하게 선고하고, 매달 사법소에 출석해 보고하도록 강요했다.

산둥성 지난시 장추구 파룬궁수련자 차오청린(喬成林)은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2026년 1월 13일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강제로 납치돼, 이후 관좡 구치소에 감금돼 모함을 받았다. 5월 18일, 장추 법원은 그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재판 당일, 차오청린의 가족은 법정 밖에서 제지당해 방청이 허락되지 않았다. 직원은 처음에는 구두로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가라”며 대충 얼버무리다가, 고개를 돌려 “계속 문을 두드리면 법정 질서 문란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위협했다. 가족은 사건 담당 판사와 공소인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상대방은 오직 ‘기밀’이라며 얼버무렸다.

톈진시 난카이구의 파룬궁수련자 총페이산(叢培珊)은 2021년 3월에 납치돼 구금됐고 반년 후 당시 82세였던 그녀는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톈진 여자감옥에서 비인간적인 고문을 겪었다. 2024년, 총페이산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후 다시 연금을 박탈당했다. 현재 87세의 총페이산은 어렵게 살고 있다.

감시카메라 문제에 관한 교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지금 중국에는 감시카메라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수련생이 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되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자신의 인식을 조금 말해보려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예전에 말했다. 내가 말하는데, 실제로 속인사회에서, 오늘날에 발생한 일체 일들이 모두 대법제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축성(促成)된 것이다.”(각지 설법2-2002년 미국 필라델피아 법회 설법)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깨달았다.

1. 대법제자가 진상 자료를 배포할 때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 속인이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고 자료가 사방에 버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력이 깃든 진상 자료가 사방에 버려지는 것을 신(神)이 차마 볼 수 없기에 이런 방식을 채택해 대법제자가 배포할 때 너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대법제자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속인이 더 소중히 여기게 하려는 것이다. 물건은 희소할수록 귀하기 마련이다. 나는 구세력이 예전에 대법 서적을 불태우던 구실로 진상 자료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법이고 대법제자가 수련해 낸 공(功)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상 자료에 에너지가 있게 하려면 법공부를

잘해야만 사악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기꺼이 자료를 보게 하며 중생을 구할 수 있다.

내 예를 들자면 나는 보통 진상을 알리기 전에 법을 외우고 나서 진상을 알리러 간다. 자료를 배포할 때 항상 정념을 유지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 효과가 꽤 좋았다. 한번은 법공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어느 골목에 가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적지 않은 자료를 돌렸다. 배포를 마친 후 나는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며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법공부 팀에 갔더니 한 수련생이 어제 누군가 모 골목에 자료를 배포했는데 사방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어제 내가 갔던 그 골목임을 알았다! 당시 매우 부끄러웠고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나를 일깨워주신 것이었다. 법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배포한 자료에 에너지가 없었고 중생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생이 업을 짓게 만든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자료를 배포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자신의 상태부터 단정히 한다.

특히 사부님의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배포할 때 어떤 수련생은 그냥 계단 복도에다 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불경스럽다고 생각했다. 나도 배포했지만 항상 매우 신중하게 처리했다. 반드시 진지하게 법을 외운 뒤에야 감히 문을 나섰고 속인의 문에 반듯하게 붙였다. 법공부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속인에게 직접 자료를 주면 속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주 진지하게 읽었는데 마치 시공을 잊은 듯했다. 사부님의 법 한 구절이 떠올랐다. “얼마만큼 강한 정념(正念)이 있으면 그만큼 큰 위력이 있다.”(정진요지2-역시 두세 마디를 말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일부 수련생은 자신이 자료를 배포할 때 강대한 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자료가 사방에 버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수련생이 커다란 원칙적 문제를 범하고도 스스로 고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를 어찌 고치겠는가? 예전에 빅데이터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수련생들이 사악의 체포에 직면했을 때 유랑할 수 있었다. 나는 자신의 문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집을 떠나 유랑하며 사악의 박해를 피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년이 넘도록 계속 유랑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수련에서 향상하지 못한 것이다. 구세력 역시 이런 방법을 사용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려 한다. 마치 그들이 악인을 조종해 수련생을 세계 때림으로써 수련생의 근본적인 집착을 없애고 정념을 이끌어내려는 것과 같다. 악한 마음으로 악을 통제하는 것 역시 구세력의 부패된 관념이 형성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법공부를 많이 하고 진지하게 법공부하는 것이다. 법공부를 할 때 매 구절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꾸준히 견지해 시간과 양을 모두 채워야 하며 그러면 법이 당신 문제의 소재를 일깨워줄 것이다. 지금 명혜망에 법공부에 관한 교류 글이 몇 편 있는데 정말 훌륭하니 많이 참고하면 좋겠다.

2. 두려운 마음을 없애지 않고 진상 자료에 의존한다

일부 수련생은 ‘사부님께서 세 가지 일을 잘하라고 요구하셨고 진상 알리기는 그중 하나다. 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지 못하겠으니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자'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진상을 알리는 일을 하기도 했고 두려운 마음을 힘들게 돌파할 필요도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감시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소책자 한 권을 놓아두는 것이 사람을 직접 마주하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말하는 것보다 쉬웠다. 구세력은 이 마음을 보았고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방법을 사용해 이러한 수련생들이 진상 자료에 의존하는 마음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나 역시 처음에는 자료만 배포했고 대면해서 진상을 알리지는 못했다. 마침 음성 전화가 보급될 무렵이었는데 입을 열어 말하지는 못하고 음성만 틀어놓았다. 어느 날 밤 꿈에 내가 한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사부님께서 칠판에 한 줄의 글을 쓰셨다. '진상 알리기가 위주이고 진상 자료는 그저 보조일 뿐이다.' 나는 즉각 둘의 관계를 깨달았다. 자료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내가 주체가 되어 나 자신이 진상을 알리는 것이 위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나는 입을 열어 말하는 고비를 돌파했고 그 과정에서 내 진상 알리기 능력도 단련했다.

전화카드가 차단되는 일도 나는 의존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수련생은 음성 전화에 유독 의존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돌파하지 못했고 자신 본연의 진상 알리기 역시 돌파하지 못해 주객이 전도됐다. 대법제자는 무엇에 의존해서도 안 되며 총리에게 의존했던 사례는 모두가 아는 바이다.

또한 음성 전화를 너무 함부로 돌리는 등 마음이 충분히 순수하고 바르지 못한 점도 있다. 내 곁에 수련을 꽤 잘하는 수련생 한 명이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한번은 밤에 전화 끄는

걸 깜빡했는데 음성 전화가 밤새 자동으로 전화를 걸었지 뭐야.” 이것은 밤새도록 스팸 전화를 건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역효과가 난다. 나 역시 한번은 끄는 것을 잊었다가 한밤중 12시가 다 돼서야 알아차리고 곤장 켜는데 나 스스로도 그 청취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상 자료 역시 같은 이치다.

3. 또한 수련생들이 수련을 엄숙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수련은 정말 너무나도 엄숙하다. 우리가 보기에 매우 작은 일이라 중시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사실 모두 구세력이 박해하는 구실이 된다. 어느 날 명혜망 교류 글을 보았는데 한 수련생이 다른 수련생 집을 방문하다가 박해받았다고 썼다. 그렇다. 다른 사람 집을 함부로 방문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구세력이 이치를 붙잡고 박해하기 때문이다.

내 예를 들어보겠다. 나 역시 예전에 경찰에게 전화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물론 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몰랐지만 나에게 분명히 누락이 있다는 것은 알았다. 나중에 발정념을 하는 과정에서 사부님께서 나에게 ‘수련 형식을 바꿨다’고 일깨워 주셨다. 나는 순식간에 깨달았다. 내가 경찰에게 전화 괴롭힘을 당한 원인이 놀랍게도 내가 수련생 집에 놀러 가서 수다를 떨고 밥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원인을 찾은 뒤에 사악은 물러갔다.

이후에 또 한 번 사악한 인원이 문을 두드리며 괴롭힌 적이 있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놀랍게도 내가 수련생의 사회보험 가입을 도와줬기 때문이었다. 나는 정에 이끌려 일을 할 때 정분을 따졌고 위조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간과 힘을 허비했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물론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이치에 따라야 하며 억지로 해선 안 된다. 자신이 조건이 되면 스스로 가서 처리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서 다른 수련생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런 일들을 수련생 사이에서 벌어서는 안 된다.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수련 형식은 바로 세 가지 일이다. 수련생들이 함께 모이면 법공부를 위주로 하고 교류는 적게 하며 진상 알리기가 도처에서 활짝 피어나게 해야 한다. 그 외 사적인 그 어떤 일도 허용되지 않으며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구세력은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켜 박해하기 시작한다. 중국 내에서는 괴롭힘, 구금 등이고 해외에서는 병업 고비다. 수련은 결코 장난이 아니며 매우 엄숙하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게 되면 수련 형식을 바꾸는 일이 매우 많고 또 어느 정도 보편적임을 발견하게 된다. 일부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결과적으로 구세력에게 꼬투리를 잡힌다. 예컨대 놀기 좋아하는 수련생들이 꽤거리를 지어 수련생들과 여행을 다니는 것 등 사적으로 속인처럼 교류하는 일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치로 문제를 가늠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관없다고 느끼지만 구세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법제자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러 온 것이기에 수련생 사이의 이런 인정(人情) 왕래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서로를 교란하는 것이다. 장기간 고치지 않으면 구세력은 사악을 이용해 박해할 텐데 그 구실은 내부 환경을 정화한다는 것이다.

어떤 수련생은 이 방면을 중시하지 않아 이미 사악에게 감시당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전혀 모른다. 게다가 어떤 감시 장비는 원

격 카메라와 초소형 카메라 등 겉보기에는 알 수 없어 밖에서는 카메라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이 방면에서 즉시 바로잡지 못한다면 자신만 위험한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거로움을 가져다주기 쉽다. 아울러 대법제자는 왕래할 때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맺음말

애초에 대법을 박해하던 사악한 생명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두머리 마귀마저 죽었다. 구세력은 어차피 끝낼 수 없으니 박해 형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대법제자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가 갈수록 부패되고 중생의 업력이 갈수록 커지자 구세력은 많은 중생이 이미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도처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중생이 구원받는 데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중생의 업력이 크기 때문에 중생이 구원받는 경로가 줄었고 구원받을 희망도 줄었다. 한편으로 대법제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이런 중생을 구하려면 요구가 더 높아져서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 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부를 배포해서 9부가 버려지게 해선 안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고 한 부를 배포할 때마다 그 한 부가 금빛으로 반짝이며 진정으로 중생을 구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적인 체험이자 증차가 유한하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들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

‘샤오편홍’에서 굳건한 대법제자로

글/ 유럽 화인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에 중국 본토에서 유럽으로 와 박사 학위를 마친 후 대학에서 강의했고, 이후 세계 500대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고급 기술 전문가로 일하면서 제가 어느 날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들어서게 될 줄은, 그것도 무려 27년이나 걸어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득법 전: 전통 가정에서 ‘샤오편홍’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오랜 무신론 교육의 영향으로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도 절을 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불상에 다소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그랬습니다.

학업 성적은 늘 우수해서 ‘삼호 학생(품행·학업·건강 세 방면에서 모두 모범적인 학생)’에 자주 선발됐습니다. 소년선봉대에도 첫 번째로 입대했고, 공산주의청년단에도 제일 먼저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중공이 나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직업상의 이유로 입당했지만 평소에 시사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럽에 막 왔을 때, 대학에서 일하는 중국인 친구가 1989년 ‘6·4’(천안문 사태) 당시 군대가 총을 쏘았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전혀 믿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그가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전형적인 ‘샤오편홍(小粉紅, 맹목적 애국주의에 빠져 공산당을 추종하는

중국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지만, 대학 졸업 후 위장병이 생겨 제때 밥을 먹지 않으면 위가 아팠습니다. 맵고 달고 시고 쓴 음식은 모두 먹지 못했습니다. 중의원과 병원을 전전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수면도 좋지 않고 집중도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바꿔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득법 후: 몸의 변화에 놀라다

혼자 타지에서 지내며 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전법륜(轉法輪)’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읽고 나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 다섯 가지 공법을 배웠습니다. 주변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선량하고 진실했습니다.

대략 2~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어졌고, 밥도 맛있게 먹히고, 잠도 잘 자고, 기력도 넘쳤습니다. ‘이 공법은 정말 좋구나’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대학과 회사에서 독감이 유행하면 다들 병가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은 분명 관참을 거야”라고 자주 농담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몇 번의 가벼운 이상 증세만 있었을 뿐, 그때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고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곧 ‘진선인(眞·善·忍)’을 닦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1년, 2년은 쉬울 수 있어도 10년, 20년, 30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련의 기쁨과 신성함은 실제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1. ‘진(眞)’을 닦다: 습관적인 거짓말에서 떳떳함으로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칭찬을 받거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는 습관이 들었고,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은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련 후 사부님께서서는 무엇보다 먼저 ‘진’을 이루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익을 잃든 체면이 손상되든 관계없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999년 7월,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하자 거짓 선전이 유럽에도 퍼져 중국 유학생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제가 수련한다는 것을 아는 일부 학생들이 저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저는 점차 수련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중국 내 수련생들이 잡히고 맞고 심지어 박해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수련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대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심과 어긋나게 자신만 보전하며 한마디 공정한 말도 못 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면서 무슨 ‘진’을 말한단 말인가?’ 그리하여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입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수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직접 자료를 인쇄하고, 퍼레이드와 집회에 참가하고, 대사관 앞에서 24시간 평화 청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 졸업 그해, 헤드헌팅 회사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고연봉 일자리를 찾아줬는데 연봉이 100만 위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귀국하면 공개적으로 수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포기

했습니다. 이후 인연이 닿아 유럽의 세계 500대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 ‘선(善)’을 닦다: 한 발 물러서면 하늘과 바다가 넓어진다

저는 전문 분야에서 20여 년을 일하며 팀에서 공인된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협업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제가 오래 맡아온 프로젝트를 이어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상대방을 먼저, 나는 나중에’(先他後我)라는 가르침이 떠올라 저는 승낙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료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문 분야의 대표 자리까지 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 전이었다면 절대 이런 손해를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은 제게 ‘선’을 깨닫게 해줬고, 그 동료가 젊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분야를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관련 프로젝트에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5년 후, 저는 그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싸웠더라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지금과 같은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3. ‘인(忍)’을 닦다: 진정한 시험은 일상에서 온다

한 프로젝트에서 오해로 인해 한 팀원이 저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저더러 프로젝트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이

메일에는 상사를 포함해 수십 명이 참조돼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충분히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인으로서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으로 찾고 인내를 배우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함이 전혀 생기지 않으며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수련자의 참음이다.” (정진요지-무엇이 참음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성해보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답장을 써서 그의 지적에 감사하고 오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 매니저만 한 번 이 일을 언급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 저는 먼저 그 동료에게 인사를 건넸고 모두 계속 협력했습니다.

진정한 ‘인’의 시험은 사실 관광지에서 진상을 알릴 때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고, 사진을 찍으며 도발하거나 심지어 손을 대려고도 했습니다.

한번은 중국 중학생 무리가 지나가다가, 제가 진상 자료를 주려 하자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존중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모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법’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서 있는 평범한 대법제자였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인’을 떠올리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들은 거짓 선전에 속아 있는 것이다. 나도 전에 그렇지 않았던가?’

중공 조직 탈퇴: 미망에서 각성으로

박해 초기에는 이것이 중공 최고 지도자 개인의 잘못이라 지도자만 바뀌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안문 분신 자작극’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공이 국영 방송을 이용해 이런 거짓 사건을 조작하다니.’

2004년 ‘9평 공산당’(한글판: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이 발표됐습니다. 처음에는 절반밖에 읽지 못했는데,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근거가 탄탄하고 논리가 엄밀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읽으면서 정말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번을 더 읽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중공이 곧 중국이 아니라는 것, 중공이 왜 파룬궁을 박해하는지, 그리고 역사 속 그 사건들의 진상을.

이전에 중공에 대한 저의 인식이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했습니다.

맺음말: ‘샤오편홍’에서 떳떳한 대법제자로

파룬따파는 저를 이기적이고 소심했던 ‘샤오편홍’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수련인으로 변화시켜줬습니다.

독자 여러분, 저는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혹독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대법제자들은 학력, 신분, 인종에 관계없이 진상을 알립니다. 오직 여러분이 진상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명혜망 2026년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응모작)

‘정(情)’에 대한 얇은 인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제 주변의 한 수련생이 병업(病業)으로 세상을 떠났고, 또 한 분의 노년 수련생도 병업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매우 정진했고 홀로 한 분야를 감당할 수 있던 수련생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두 분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에 대한 정, 자매에 대한 정, 남매에 대한 정, 부부에 대한 정 등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류할 때 보면 무의식적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인식은 하지만 인지상정이라고 여겨, 사고 속에 정이 범람하도록 내버려 둔 채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형 중이나 유형 중에 ‘정’의 살상력은 확실히 매우 강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의 유희를 묵인했고, 희로애락에 얽매어 자손들이 무릎을 맴도는 천륜의 즐거움과 자녀의 효도에서 오는 따뜻함, 부부간의 관심과 보살핌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일단 자신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곧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억해 보면, 몇 달 전 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 수련생을 보러 갔을 때, 그는 딸이 보러 오지도 않고 관심을 주지도 않는다며 정을 끊어야겠다고 제게 원망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근심과 원망을 토로했고 완전히 정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으로 주변의 시시비비를 가늠하며 비록 법공부도 하고 연공도 했지만, 마음이 법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병업 고비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병업 중에 있는 또 다른 수련생은 예전에 참으로 용맹정진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항목에서 정진했을 뿐만 아니라 병업이 나타났을 때 고비를 넘는 것도 특히 빨랐습니다. 한번은 혈압이 220이 나왔을 때 그 어르신은 아예 개의치 않았고 병업 가상이 아주 빨리 사라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며칠 전 제가 그를 보러 갔다가 함께 법공부를 하며 교류했는데, 그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아이에게 미안한 것 같고, 약을 먹으면 사부님께 죄송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사람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한 손으로는 신을 잡고 놓지 않으시네요. 이것을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들이 효도하느라 늘 저한테 약을 먹으라고 지켜보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효도’라는 속인 중의 아주 아름다운 이 단어가, 마치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를 삶듯 그를 사람 속에 짓눌러 놓고, 사람의 정 속에 억눌러 놓은 것입니다!

수련은 엄숙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수련해야 하기에, 저는 요 며칠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전체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 내면을 자세히 살피며, 외손자나 딸에 대해 때때로 그리움이 생기지는 않는지 보았습니다. 이 정을 피하기 위해 저는 가끔 휴대폰을 보며 생각을 전환했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정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 제 눈이 불편하고 귀도 특히 가려웠으며 더러운 것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은 곧 하나의 큰 마굴이었습니다. 제가 정을 피하려다 오히려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이렇게 찾고 나니 깜짝 놀라 과감히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수련생 여러분, 특히 중노년 수련생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정에 빠져서 자손에 대한 정, 자녀에 대한 정, 이른바 어머니는 어질고 자식은 효도한다는 것에 교란받지 마시고, 정의 수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친정(親情)에 집착함은, 기필코 그로 인해 지치고 얽매이며 마에 사로잡히게 됨이라, 그 정사(情絲)를 잡아 쥐어 일생토록 방해받으니, 나이가 들면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정진요지-수련자 금기)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이니 자비를 닦아내고 정을 제거해야 하며, 사람의 정에 통제되거나 갇혀서는 안 됩니다.

작은 체득을 적어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합니다. 법에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비평하고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허스(舍十)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은 교훈

글/ 헤이룽장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지 29년이 됐고, 올해 79세입니다. 아래에 제 수련 체험의 일부를 써서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합니다.

과시심의 위험성

수련 과정에서 과시심은 줄곧 저를 따라다녔으며, 수련의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몇 년 전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

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할 때, 저는 틈만 나면 수련생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신나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또 자주 소그룹 수련생들에게 구치소나 구류소에서 가족의 정에 관한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지 이야기하며, 스스로 사부님과 법을 잘 믿는다고 으스대며 득의양양해했습니다.

명혜망의 한 글 ‘내부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은밀한 현상을 경계하라’를 읽고 저는 크게 뉘우쳤고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사부님께 죄송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이며, 대법을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심생마(自心生魔)이고, 강렬한 과시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과시심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련을 거듭해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나쁜 것을 경계하고, 동시에 구세력이 안배한 모든 것을 전면 부정하며, 법을 더 많이 외우고 사부님과 법을 굳건히 믿어야겠습니다. 심성 수련을 중시하고,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하며,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자신을 실증해서는 안 됩니다.

수구(修口)하지 않아 크게 넘어지다

작년 5월 중순 어느 날 오전, 저는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유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길에서 이웃을 만나 다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 화를 섞어 두마디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수련인임을 잊었습니다.

이웃과 헤어진 뒤 건물 구역 길가의 작은 계단에 막 다가섰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엎어

졌고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기에 안경테가 이마 눈썹 옆을 깊이 파고들어 큰 상처가 생겼고 피가 쿵쿵 흘렀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넘어진 것은 수련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스카프로 상처를 막았습니다. 먼저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고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구세력의 박해를 부정하고 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했습니다.

근처 A 수련생 집에 도착했을 때, A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웃옷과 바지, 스카프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A에게 대략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함께 정념을 발하며 사악한 박해를 해체하자 피가 멈췄습니다. A의 아들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왔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상처가 꽤 깊네요. 빨리 병원에 가서 몇 바늘 꿰매셔야 해요.” A와 저는 함께 “괜찮아, 사부님이 지켜주고 계셔”라고 했습니다.

A는 걱정이 돼 기어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줬는데, 그때 딸은 집에 없었습니다. A가 떠난 후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사부님 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후 1시, 소그룹 수련생들이 법공부를 하러 집에 왔다가 저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들 “괜찮아요, 우리에게 사부님이 계시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법공부를 시작했고, 법공부 중에도 피가 조금 흘렀지만 곧 멈췄습니다. 그 과정 내내 저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처 주변에 큰 혹이 생겼고, 이마에는 안경테에 파인 깊은 흠이 생겼으며 색이 검게 변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한창 법공부 중이었습니다. 딸은 제 상태를 보고, 또 세탁기 위에 놓인 피 묻은 옷을 보고는 크게 놀랐지만 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괜찮으세요?”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도 직장에서 돌아와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사부님이 지켜주고 계셔”라고 했고, 아들은 출근했습니다. 딸은 겁을 먹어 감염이나 발열, 혹은 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시로 문을 열어 저를 살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달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상처는 이미 딱지가 앉았고, 혹은 여전히 있었으며 반쪽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 보기에 좀 무서웠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A가 저를 보러 왔고 제가 꽤 잘 회복됐음을 확인했습니다. A는 아들이 저의 상태가 어떤지, 열은 없는지 걱정하며 다녀오라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A가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아무 일도 없어. 우리 대법 수련하는 사람들에게겐 사부님이 지켜주시거든”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고령이신데다 상처도 깊어서 당시 저도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처치도 안 받으셨는데 아무 일도 없다니”라고 했습니다. A의 아들은 예전에는 대법을 그다지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대법의 신기함을 직접 목격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생긴 뒤, 법공부 소그룹 수련생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모두 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입을 잘 단속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논하거나 때로는 수련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두들 “앞으로는 정신 차려야겠어요, 반드시 사부님의 요구대로 해야죠”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법공

부 소그룹 수련생들은 보통 사람의 일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명혜망의 수련생 교류 글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고 수련에서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핍니다.

저는 2년 가까이 햇빛이 눈부시다며 외출할 때 안경을 쓰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스스로를 수련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저것 두려워하던 보통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법 암기의 수확

저는 매일 오전에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유하러 나가고, 오후에는 법 암기(소그룹 법공부 외)에 시간을 씁니다. 법 암기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안으로 찾고 안으로 수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배려하며, 남을 탓하지 않게 됐습니다.

법 암기로 안으로 찾는 법을 배우다

한 달 전, C 수련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휴대폰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아요.” 저는 “정말 위험한 일이군요! 차라리 차단해 버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C는 “그러죠”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의 어떤 마음을 겨냥해서 온 건가?’ 살펴보니 또 과시심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휴대폰 문제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줄곧 휴대폰이 없고 가족과 연락할 일반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며, 수련생과는 연락하지 않고 용무가 있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저녁에 정념을 발할 때 이 과시심을 제거하고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법 암기로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다

며칠 전 D 수련생이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요즘 머리가 울리고 잠을 못 자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겠어요. 법공부도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해요.”

D는 제가 2년 전 진상을 알릴 때 만난 수련생입니다. 그때 D는 울면서 새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과 함께 사는데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고 수련생도 찾지 못해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D를 집으로 데려오며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집에 와서 법공부 해요. 수련생이 두 분 더 있어요, 함께 해요.” D는 “알겠어요”라고 했지만 이튿날도, 그 이후도 오지 않다가 이번에 온 것이었습니다.

첫날, D는 법공부를 아주 빠르고 급하게 하다가 ‘전법륜(轉法輪)’ 7페이지만 읽고 불일이 있다며 집에 갔습니다. 이튿날 오후 2시에 D가 다시 왔는데, 법공부 시간에 결가부좌를 못하고 한쪽 다리를 뺀 채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법륜’ 한 강을 다 배웠고, D는 “마음이 답답하지 않네요”라고 했습니다.

D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된 수련생이에요. 남편도 수련생이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독려해줘서 그때는 저도 많이 정진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법공부를 게을리하고 연공도 안 하게 됐어요. 법공부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됐고요. 주변에 수련생도 없다 보니 보통 사람들과만 어울렸어요.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 병도 없었고 몸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는 매일 연공을 해서 얼마나 활기찼는지 몰라요.”

저는 다 듣고 나서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고 마음속에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저는 늘 수련생을 나무라고 너그러운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수련생들도 제가 늘 남을 탓한다고 뒤에서 말했고, 일부 수련생들은 저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D가 사부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용량을 넓히고 심성을 높이라고 보내주신 인연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법을 잘 공부하고 착실히 수련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원만히 사부님을 따라 귀가하겠습니다.

벧속까지 파고든 집착을 제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눈 깜짝할 사이에 또 1년이 지났고, 시간은 정말이지 너무 빨랐다. 너무 빠르다 보니 나는 늘 매일 시간이 몹시 빠듯하다고 느꼈고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렸다. 세 가지 일은 늘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항상 몹시 바쁘기만 해서 자신을 잘 조정할 시간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련생들이 집착심을 제거한 교류 문장을 한 편 한 편 읽을 때면, 나는 수련생들과 비교해 내 난관이 너무 작다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나는 늘 고비를 잘 넘기지 못했다.

1. 이익심을 제거하다

몇 년 전 나는 대법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를 받았다. 남편은 자기 사촌 누나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매달 3000위안을 주었다. 사촌 누나는 추가로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고, 내 새 휴대폰과 친척들이 아이에게 준 세뱃돈까지 모두 자기 것으로 차지했다. 심지어 남편에게 자기 집 인테리어 비용까지 내게 했다.

내가 돌아온 후, 사촌 누나의 언행을 듣고 내 마음은 정말 오만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나를 더욱 마음 놓기 힘들게 한 것은 아들에게 여러 가지 병까지 생긴 것이었다. 위장도 좋지 않았고, 비염도 생겼다. 아이는 음식을 먹을 때 몹시 조심스러워하며 당당하게 먹지 못했고, 결눈질로 우리가 밥 먹는 것을 살폈다. 아이는 간식을 조금 먹을 때도 사람이 없는 곳이나 뒷방으로 달려갔다. 나는 이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하고 무척 의아했다. 나중에 아이와 대화하고서야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고모 집에 우리 아들보다 한 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몸이 약하고 편식도 했다. 고모 집 아이가 먹다가 안 먹는 음식을 우리 아이에게 주었고, 우리 아들은 먹으면서 고모 집 아이에게 욕까지 먹었던 것이다. 아이를 억박질러 음식도 정상적으로 먹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이는 늘 괴롭힘을 당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속으로 아이에게 무척 미안했다. 내가 수련을 잘하지 못해 친척과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압박을 주었다고 자책했고, 남편과 특히 아이에게 몹시 빚졌다고 느꼈다. 나는 속으로 은밀히 다짐했다. ‘반드시 수련을 잘해서 다시는 사악에게 틈을 내주지 않겠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아이가 또 자존감이 낮고 몸도 좋지 않은 데다 말까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마음도 또 올라와서, 남편과 사촌 누나를 자주 원망했다. 특히 돈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은 늘 화가 났다. 나를 더욱 괴롭게 한 것은 남편이 돈을 짝 쥐고 내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전부 주지 않는 것이었다. 내 원망

심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나는 마땅히 이익심을 수련해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불평을 참지 못했고, 늘 참지 못하고 사촌 누나의 잘못을 들춰냈다. 그러자 남편은 나와 말하는 횃수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나 역시 몹시 괴로웠다.

나는 끊임없이 사부님 경문의 ‘수련자 금기’를 외웠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실히 수련함에 따라 나는 지금 아이가 고모 집에서 겪은 억울함에 이미 개의치 않게 됐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이건 모두 업력이 빚어낸 거란다. 우리가 그 집에 빚을 졌으니 업을 갚고 있는 거야. 모두 좋은 일이다.”

2. 원망심을 수련해 없애고, 이웃이 탈당하다

우리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래된 우리 소유의 집이 또 한 채 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없었지만 텃밭은 내가 가꿨는데, 이웃집에서 그집 바깥쪽 담장 밑동에 쥐엄나무를 심었다. 당시 그들이 심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무가 갈수록 커지더니 그 큰 가시가 어떤 것은 8~9센티미터나 되어 그야말로 무서울 지경이었다. 나는 텃밭에 가기만 하면 그 큰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몹시 화가 났지만 차마 터뜨리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연공인이니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야 해. 이 일 때문에 그 집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돼.’

사실 이전에 이웃집 할머니는 내 시어머니와 여러 번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 할머니는 큰올케언니의 친이모였는데, 너무 드세서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이 할머니는 여러 차례 우리집 과일나무의 큰 가지를 꺾어버렸는데, 나는 그저 조용히 이 일을 덮어두었다. 할머니는 또 풀과 옥수수대를 우리집 텃밭에 던졌는데, 나는 모두 불로 태워버렸다.

하지만 나중에 그 집은 뜻밖에도 한술 더 떠서 끊임없이 우리 집 담장 옆에 나무를 심었고, 심지어 우리집 큰 느릅나무에 약까지 부어서 그 나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나는 우리 나뭇가지가 줄어든 일 때문에 할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할머니에게 모함을 당해 800여 위안을 뜯기기까지 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고, 이 원망심을 내려놓았다. 나는 할머니 집에 가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했으며, 그 가족들은 모두 대법을 인정하게 됐다. 나는 또 해마다 그 집에 세배하러 가서 탁상달력, 진상 대형 책자 등을 주었다.

작년 봄, 이웃집 할머니의 딸이 나를 찾아와 우리 집 땅 한 뼨기를 사거나 임차하고 싶다고 했다. 그 땅은 이웃집 뒤편에 있었다. 사실 우리 집의 이 땅은 예전에 친척 다섯째 오빠에게 경작하도록 줬던 것인데, 작년 봄에 나는 다섯째 오빠에게 그 땅에 나무를 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섯째 오빠는 나에게 땅이 이미 자기 것이 됐다고 알려줬다. 나는 몹시 깜짝 놀라 말했다. “우리 집 땅을 오빠한테 경작하라고 준 데다 다 토지증명서가 있는데, 어떻게 오빠가 경작했다고 해서 오빠 땅이 된단 말이에요?” 다섯째 오빠가 말했다. “아이고! 내가 마을 서기랑 이야기를 마쳤고 마을 서기도 허락했단다.” 나는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한테 토지증명서가 있어요?” 오빠는 없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오빠가 마을 서기랑 계약서를 썼어요?” 오빠가 말했다. “안 썼어.” 내가 말했다. “그럼 어떻게 오빠 땅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오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여전히 네 것이지.” 나는

집에 돌아가 토지증명서를 찾아 다섯째 오빠에게 보여주었다. 다섯째 오빠는 그 위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한 번 보더니 말했다. “그럼 네 것이 맞네. 너한테 돌려줄게!”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계속 경작하셔도 되는데, 제가 언제 필요할지 나중에 오빠한테 알려드릴게요.” 다섯째 오빠는 알겠다고 했다.

설이 될 무렵에 이르러, 다섯째 오빠 딸이 나에게 자기 아버지가 우리집 그 땅을 경작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래”라고 했다. 이렇게 봄이 되자 이웃집 딸이 나를 찾아와 땅을 임차하려 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알고 보니 다섯째 오빠가 이웃집 뒤에 있는 우리 집 그 땅을 1000위안을 받고 이웃에게 팔았던 것인데, 나중에 다섯째 오빠와 그 딸이 이웃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이웃이 나를 찾아와 정식으로 임차하려 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앞뒤로 생각해 본 뒤 그녀의 딸에게 말했다. “댁의 집 뒤에 있는 그 땅은 당신이 경작하세요. 저도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당신도 소문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세요. 누군가 뒷말을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윗세대의 갈등을 아래로 쌓아가지 말아야지요. 일은 지나갔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잘 지내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요. 지금 천재지변과 인재가 끊이지 않는 걸 보세요, 뭐가 내려놓지 못할 게 있나요? 제가 일찍이 노인들에게 들었는데, 원래 우리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 아주 잘 지냈는데, ‘4청’ 공작조가 오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과 따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찢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모두 어려움을 만나도

상서로움으로 변하고 평안할 거예요.” 이웃집 딸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들 사부님은 너무 좋으시네요. 당신 같은 좋은 제자를 가르쳐 내셨군요. 무슨 요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말했다. “저에게 길을 하나 남겨주셔서 제가 밭에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웃집 딸이 말했다. “그건 문제없어요. 제가 쥐엄나무 두 그루를 베어내서 당신이 밭에 들어갈 수 있게 보장해 드릴게요.” 이웃집 딸은 또 말했다. “나무를 심으시려면 저희 집에 와서 물을 펴주세요. 이런 건 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에 나 역시 무척 감동했고, 여러 해 동안 멧힌 마음의 응어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는 가운데서 열렸다. 나 자신도 정말 기뻐하고, 내 원망을 제거해 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렸다.

지난달 내가 밭에 갔을 때 마침 이웃집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 집에 있었다. 나는 그를 둘째 오빠라고 부르는데, 둘째 오빠는 중점 고등학교 교사이고 당원이며 사실 나보다 딱 두 살 많다. 나는 둘째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으로 ‘그가 진상을 알고 평안을 보전하기 바란다’고 한 가지 발원을 했다. 둘째 오빠는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식품 안전,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둘째 오빠가 말했다. “너에게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는 10년 전부터 병이 있었어. 내가 이러다 곧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더는 보충수업을 해주지 않았지. 게다가 보충수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대학생들도 다 일거리가 없는데. 시간이 있으면 나는 돌아와 노인을 돌보고 텃밭을 관리해.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지. ‘○○○(나를 가리킴)를 보세요. 살림이 비록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애는 병이 없고 두 아들도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남들이 파룬궁을 배워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교육했는지 보세요. 저 사람들을 보세요. 비록 돈은 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 냈는지. 지금 교사들은 다 감히 견드리지도 못하고 감히 관리하지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거든요. 학생을 위해 잘해줘도 학부모가 다 고마워하지 않아서 아이가 얼마나 버릇없어 졌는지 몰라요.’ 너희 집처럼 이렇게 철든 아이는 너무 적단다.”

내가 말했다. “둘째 오빠, 당원이에요?” 둘째 오빠는 그렇다고 했다. 내가 말했다. “둘째 오빠, 오빠 이름으로 마음속으로 당·단·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이 사람을 나쁘게 가르쳐 놓은 건데, 공산당이 멸망하려 할 때 오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요. 우리가 무사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면 어른과 아이 모두 평안할 거예요.” 둘째 오빠가 말했다. “좋아, 나 탈당할게.” 내가 또 말했다. “오빠 반드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큰 재난이 올 때 목숨을 보전할 수 있고 재난이나 전염병 등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거예요.” 둘째 오빠가 말했다. “좋아, 기억할게.”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둘째 오빠와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 둘째 오빠는 또 복숭아, 배를 주고 채소까지 주려 해서 나는 일일이 사양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몹시 감개무량했다. ‘또 하나의 생명이 구원받았구나.’ 다행히 내가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가족을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3. 과일을 산 이야기

우리 지역은 체리가 많이 난다. 체리가 익었을 무렵에 여동생이 우리집에 왔고, 나는 여동생과 시장에 가서 체리를 사 집으로 부치

기로 상의했다. 어느 날 우리 둘은 시장에 갔는데 시장 가득 모두 체리였다. 우리 둘은 한 체리 가게를 골라 가격을 흥정했고, 여동생은 저울에 단 체리를 집으로 부치고 나는 계산을 기다려 돈을 내려고 했다. 옆에서 체리를 팔던 아저씨가 말했다. “81 아니, 80 위안이요.” 나는 그에게 81위안을 주겠다고 했다. 당시 아저씨는 꽤 놀란 표정이었다. “어?!” 내가 말했다. “저는 파룬궁을 배워서 남의 돈을 속여 먹지 않아요.” 아저씨는 깔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파룬궁은 뭐 하러 배워요?” 내가 말했다. “저는 파룬궁을 배우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 자투리 돈을 깎지 않아요. 아저씨 생각에는 진선인(眞·善·忍)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음, 파룬궁은 좋네요!” 그때 아저씨에게 돈을 주는 한편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했다. 아저씨는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내게 알려주었고, 나는 아저씨에게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기억하세요. 어떤 재난도 닥치지 않을 테니, 집에 돌아가서 아주머니와 아이들에게도 다 말해주면 온 가족이 다 평안할 거예요.” 아저씨는 기뻐하며 물건을 정리하는 한편 말했다. “고마워요, 파룬따파하오, 파룬따파하오.”

이때 맞은편 아주머니가 체리를 들고 내 앞까지 와서 말했다. “체리 더 필요하세요? 저도 그 가격에 드릴 테니, 한번 맛보세요!” 내가 맛을 한 번 보니 확실히 아주 맛있어서, 잠시 후 여동생이 돌아왔을 때 여동생에게 물었다. “더 살래?” 여동생이 5kg을 더 달라고 했다. 나는 여동생에게 맛보게 했고 여동생이 먹고 나서 말했다. “아주 맛있네, 사자!” 그 아주머니가 말했다. “마음대로 고르세요.” 내가 말했다. “안 돼요, 그냥 위에 있는 걸 담아주시면 돼요. 체리는 한 번 뒤적이면 팔기 힘들어지잖아요.” 아주머니는 감동해

서 말했다. “괜찮으니 마음대로 고르세요.” 나는 여동생에게 그냥 위에 있는 체리를 담자고 했다.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좋네요!” 나는 곧 아주머니에게 삼퇴에 관한 일을 말하며 탈당, 탈단, 탈대에 대해 말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전 진작에 탈퇴했어요. 고마워요. 저희 쪽에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정말이지 파룬궁은 좋아요!”

내가 눈을 들어 한 번 보니 근처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두 찬사의 눈빛을 보내오고 있었다. 정말이지 일은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1위안의 돈으로 파룬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바꾼 것이다.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하기만 하면 자신은 제고될 것이고 중생은 변할 것이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관념을 바꾸고 남을 위한 마음을 수련하다

글/ 랴오닝성 대법제자 금화(金花)

[명혜망] 어느 날, 저는 법공부 팀에 법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법공부를 마친 후 수련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류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막상 말하고 나서 앞으로 당신이 법공부를 하러 오지 않을까 봐 두렵네요. 저는 당신에게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이 보여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동수님, 말씀하세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무조건 법공부를 하러 올 테니 안심하세요.” 수련생은 진심 어린 태도로 말했습니다. “우리집에 법공부를 하러 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리

다른 수련생들은 정시에 도착해 법공부를 시작하지만 당신은 항상 10여 분 늦게 오고 때로는 더 늦기도 해요. 우리가 한창 마음을 다해 법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이 문을 두드리죠. 당신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법공부 팀이고 모두가 함께 잘 유지해야 해요. 당신은 항상 늦게 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시간을 약간 뒤로 미룰게요. 만약 당신이 인위적으로 시간을 잘 안배하지 못한 것이라면 자신의 원인을 안으로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늘의 신께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법공부하는 이 시간을 절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부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장래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안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나올 수 없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법공부 팀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시에 간 날이 정말 며칠 없구나. 내가 대체 왜 이러지?’ 예전에 다른 수련생들도 선의로 제게 지적해 줬지만 저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정말이지 법과 잘 대조하고 안으로 찾아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법(大法)을 부차적인 위치에 놓고 당신의 신통을 중요한 위치에 놓거나 또는 개오한 사람이 당신 자신의 이런 인식 저런 인식이 옳다고 여기며, 심지어 당신 자신이 대단하여 대법(大法)을 능가한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이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위험하며, 갈수록 더 잘못된다고 나는 말한다.”

사부님의 이 설법은 바로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법공부를 첫 번째 자리에 놓지 않고 항상 집안일을 깔끔하게 끝내고 나서야 출발해, 사부님을 공경하고 법을 공경하는 것을 해 내지 못했습니다. 깨달았으니 실천해야 하기에 이후로는 반드시 제시간에 법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시련이 닥쳐오다

제가 정시에 법공부를 하러 가기로 결심한 후 어느 날 정오에 12시 발정념을 마치고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옆에 막 다다랐을 때 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몸 전체가 변기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오른쪽 갈비뼈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허점이 있지만 대법 속에서 바로잡을 것이니 구세력의 교란과 박해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지만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인정하지 않겠다. 누가 안배하고 누가 지시했든 모두 소멸해 버리겠다!’

저는 ‘나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이므로 아무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 보려고 시도했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고 오른쪽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법공부 시간이 다 된 것을 보고 수련생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신의 상태다. 나는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는다. 그 무엇도 내가 법공부를 하러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저는 천천히 화장실 문 앞까지 이동해 가족을 불렀습니다. 가족

은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저를 부축해 일으키며 서둘러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부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아무 일 없고 병원에 갈 필요 없으며 잠시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도 했으며 평소에도 제가 대법을 배우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서 잘해내어 대법의 아름다움을 실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제자가 반드시 정시에 법공부를 하러 갈 수 있게 사부님께서 가지(加持)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간구했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시도해 봤습니다. 제가 왼발로 자전거 페달을 밟자 오른쪽 몸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있는 힘껏 오른발로 페달을 밟으니 탈 수 있게 돼 자전거를 타고 법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제자는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대신해 이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법공부 팀에 도착해 막 법을 읽기 시작했을 때 숨을 쉬는 것조차 힘에 부쳤고 목소리도 매우 작았으며 오른쪽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수련생이 제가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읽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법을 읽는 것 자체가 사악을 떨하는 과정입니다. 제 정념을 가지해 주세요.” 법 한 강을 다 공부하고 나니 몸에 힘이 생겼고 숨 쉬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불법(佛法)은 무한한 위력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관통양극법(貫通兩極法)을 7번 연공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려는데 도무지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잠자리

에 눕자마자 오른쪽 갈비뼈에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시련이 나타난 것일까? 내가 생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고통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원인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법공부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법공부가 형식에 치우쳤으며,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는 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법을 외우기로 결심해 한 번 다 외우고는 그만뒀고 법 필사로 바꾼 뒤에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듣기 싫어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으로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그렇게 많이 대가를 치렀는데도 자꾸 나에게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질투심, 쟁투심, 명예욕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까?! 찾은 후 즉시 발정념을 해 해체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눕지 못하는 것은 바로 평소 잠을 탐해 한밤중에 발정념을 하러 일어나지 못하고, 발정념을 할 때 생각이 집중되지 않아 사악을 제거하는 효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책임진 천체 우주의 중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 자신에게 무한한 희망을 걸고 있는 중생들에게 어찌 면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은 후 우선 법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체의 교란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으며, 몸의 이러한 감각은 모두 가상(假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호히 인정하지 않고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자아를 실증하는 것과 색욕심이라는 이 두 가지 좋지 않은 물질이 제 공간장 안에 있음을 찾아내어, 즉시 발정념을 해 제거하고 사부님께 가지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2. 기점을 바로잡고 남을 위해 생각하다

다음 날 남편이 저에게 상태가 어떤지, 아직 버틸 만한지 물으며 파스를 좀 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저는 사부님께서 보살펴주시니 아무 일 없고,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부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정말 좋네! 이 과일은 사부님 드리려고 산 거니까 당신이 가져가서 사부님께 올려.”

당시 우리 법공부 팀의 한 수련생이 외출을 해서 그녀가 담당하던 주간지 전달이 밀려 있었습니다. 다른 수련생이 초조해하며 수련생들이 주간지를 읽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에게 이 주간지 몇 권을 수련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아는 수련생이 한 명 있는데 교외의 아주 먼 곳에 살고 있으니 그에게 가져다주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승낙은 했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혼자 걷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먼 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체력이 버티을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이 생각이 또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또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첫 번째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관념이고 후천적인 관념이므로 그것을 원치 않으며, 남을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수련생이 이 일을 언급한 것은 아주 좋은 일이 아닙니까? 바로 저에게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생각하는 생명으로 수련해 성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수련생 집을 찾아갔으나 공교롭게도 그가 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부님께 가지를 청했고

또 다른 수련생 한 명이 떠올랐으나 어느 동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 동을 찾았으나 아니었고 또 다른 동을 찾아보니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수련생은 주간지를 가져온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며, 방금 전에도 두 호의 주간지가 곧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부님의 안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몸의 통증이 크게 줄어든 것을 느꼈고 기분도 각별히 좋았습니다.

다섯째 날 제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둘째야, 너 아주 활기가 넘치네.”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 나 다 나았어. 사부님께 감사드려. 사부님께서 또 한 번 나를 구해주셨어. 이것이 바로 대법의 위력이야!” 언니도 감동해 말했습니다. “열심히 배워. 사부님께 감사드려야지! 우리 모두 너를 지지해. 앞으로 법공부하러 늦게 가지 마. 집안일은 법공부하고 돌아와서 해도 되니까 서두르지 말고. 길에서 자전거 탈 때 안전 주의하고.”

이상은 저의 수련 체험입니다. 만약 법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터에 깔린 이후의 반성

글/ 산동성 대법제자

[명혜망] 올해 2월 초이렛날 저는 A 수련생, B 수련생과 진상을 알리러 갔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에 거치는 마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고 안전과 시간 절약을 위해 마을에 들어서면 각자

흩어져 길을 따라가며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길목에 이르렀을 때 A는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B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한참을 기다려도 A가 나오지 않자 스쿠터를 길가에 세우고 근처로 A를 찾으러 가려 했습니다.

뜻밖에도 스쿠터를 세우고 미처 몸을 돌리기도 전에 스쿠터가 갑자기 제 몸 위로 쓰러지며 오른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지날 때 ‘우두둑’ 하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는데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마치 관절이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A도 나와서 B와 급히 스쿠터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A가 “괜찮아요?”라고 묻자 저는 아픔을 참고 “괜찮아요, 그냥 다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을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B는 제 말뜻을 알아듣고 즉시 정념으로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一念)에서 나온다”(전법륜)라고 일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괜찮아, 이 일로 사람 구하는 것을 지체할 순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쿠터에 올라타 수련생들과 계속 사람을 구하러 다녔고 오전 내내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 다리를 아예 땅에 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로 지탱하며 통증을 참고 스쿠터를 세운 뒤 손으로 벽을 짚고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서야 겨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어 부축을 받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리 전체가 부어올라 조금만 움직여도 몹시 아팠고 걷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두 손으로 의자를 짚고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 소파에 앉았을 때 문득 집을 나서기 전 정념을 받을 때 사부님께서 보게 해주신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여자가 두 손으로 다리 하나를 움켜쥐고 바닥에 앉아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라며 큰 소리로 신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차에 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얼굴을 또렷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즉시 ‘멸(滅)!’이라는 일념을 발했고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출발했는데 결국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저는 자비로운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 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다리가 어찌 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수련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며 분명히 어떤 허점 때문에 사악에게 빈틈을 잡힌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근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심해서 늘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번에 사고가 난 것도 A에 대한 제 관점과 관련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사부님께서 꿈속에서 여러 차례 저를 일깨워주셨는데 꿈에서 저는 늘 A와 함께 광주리를 엮거나 고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부님께서 동음이의어[광주리(篋, lǒu)]로 제게 허점(漏, lòu)이 있음을 일깨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했으니 그것을 닦아내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며칠간 진지하게 법공부를 하고 정념을 받으면서 비로소 저는 A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근본적으로 밖을 향해 찾은 것이고 자신

을 수련하지 않은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끼며 마치 자신이 A보다 수련을 잘하는 것처럼 굴었고 늘 이러쿵저러쿵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점도 싫고 저런 점도 틀렸다고 여겼으며 그녀가 여자답지 않고 남의 말을 가로채며 겉과 속이 다르고 이유를 찾아 덮어 감추려 하며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남에게 함부로 결론을 내린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진상을 알리러 나갈 때면 그녀가 임무를 완수하듯 대충대충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장터에 가서 진상을 알릴 때면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듯 제멋대로 행동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진상을 다 알리고 고개를 들어보면 그녀가 사라지고 없어 제 마음이 흔들려 진상을 알리는 데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글씨를 쓸 줄 몰라 저는 늘 시간을 들여 그녀를 찾아다녀야 했고 장터에서 그녀를 찾다 보면 그녀는 진작에 집에 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정해둔 출발 시간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제가 집에서 그녀를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 그녀의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제가 발길을 돌려 얼마 건지 않았을 때 멀리서 그녀가 전동 삼륜차를 타고 몇 미터나 되는 긴 장대를 멘 채 여러 사람과 함께 아카시아꽃을 따러 간다며 나타났습니다. 진상을 알리러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가지 않는다면 말이라도 해줘야지 제 시간을 1시간 넘게 낭비하게 했고 아카시아꽃을 따는 것을 진상을 알리는 일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A의 이런 행동들은 모두 제게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저는 그녀를 몹시 깔보았습니다.

저는 줄곧 밖만 바라보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제고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도 이런 상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가끔은 자

신을 대조해보기도 했지만 몹시 표면적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수련할 줄 몰랐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A에 대한 불만은 더욱 깊어지고 많아졌습니다. 이런 집착은 사악에 의해 갈수록 짙어졌고 저는 늘 이런 집착심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며 비위 맞추는 말만 하고 겸손하지 않은 그녀의 태도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자주 지적했는데, 나중에는 그녀의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날 지경에 이르렀고 하마터면 구세력에게 틈을 내어 간격이 생길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회스럽고 A 수련생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결국 저는 자신을 수련하지 않은 것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 마음을 품은 채 정법(正法)의 일을 했으니 사악이 틈을 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수련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련생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수련생이 가진 수많은 집착심을 저도 다 갖고 있었건만 스스로 안을 비추어볼 줄 몰랐습니다. 사실 수련생의 잘 수련된 면은 사부님께서 모두 떼어내어 갈라놓으셨고 남은 것은 제 집착심을 제거하는 일뿐이었는데, 저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계속 밖으로만 찾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서는 저처럼 못난 제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꿈에서 여러 번 일깨워주셨건만 저는 깨닫지 못하다가 사악에게 빈틈을 찢리고 나서야 비로소 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부님의 고심 어린 안배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법공부를 통해 제게 수련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이 마음 이면에는 자아를 내세우는 마음, 원망심, 교만, 남을 깔보는 마음, 불공평하게 느끼는 마음, 쟁투심, 불평, 질투심 등 수많은 집착심이

숨어 있었고 또 상대방에게 쉽게 반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들을 찾아낸 이후 다시 A를 만났을 때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장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수련생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념이 아주 강하고 수련생 돕기를 좋아하며 고생도 잘 참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점이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찾은 덕분에 제 심성도 어느 정도 제고됐고 이와 함께 오른쪽 다리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진해서 와서 밥을 지어주고 제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며느리가 돌아가면 저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일어설 수 없어 의자에 앉은 채로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곧바로 연공을 시작했고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한 채 여러 번에 나누어 1장과 3장 공법을 끝마쳤습니다. 아침에는 가부좌를 했는데 다리가 접쳐지지 않아 한쪽 다리만 올린 채 연공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저는 동공(動功)을 한번에 다 해내려 했지만 그 1시간 반을 버티는 것이 꽤 두려웠습니다. 1장 공법을 마치고 포륜(抱輪)을 할 때 속으로 ‘한 동작을 일단 5분씩만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쪽 다리로 서 있었고 잠시 팔을 들고 있다 보니 금세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대략 5분이 다 되었겠다 싶어 눈을 떠보니 고작 1분이 조금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5분이 그토록 까마득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절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 반드시 끝까지 버텨야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일념에 사부님께서 저를 가지(加持)해주셨고 저는 팔을 안고 있을수록 점점 가볍고 경쾌해짐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도 힘이 들어갔고 몸도 곳곳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양측 포룬을 할 때는 무려 15분이나 버텼습니다. 평소에는 양측 포룬이 몹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단히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갈 때는 여전히 의자에 의지하려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 몸을 구부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고 두 손도 아파서 의자를 짚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관념이 튀어나와 ‘어찌지? 요 며칠 계속 의자를 짚고 다녀서 우리가 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돌려보니 ‘아니야, 이것은 의자를 짚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사부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거야’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념이 나오자 기적이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겁이 났는데 이번에는 멀쩡해져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금세 다녀왔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진상을 알리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제 층차가 제한되어 있어 글이 다소 장황해졌지만, 저와 같은 집착심을 가진 수련생들이 제 경험을 교훈 삼아 경계하고 사부님의 짐을 덜어드리며 다 함께 제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아울러 사부님께서 연장해주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안으로 찾으며 진정으로 자신을 착실히 수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 뉴욕주 각급 정부, 국회의원, 주 상·하원 의원, 뉴욕시 의원 및 여러 카운티, 시, 타운의 40여 명의 정계인사가 축하 서한을 보내거나 표창장을 수여해 파룬따파가 ‘진선인(眞·善·忍)’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시민의 심신 건강과 사회도덕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찬양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205만 9364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